

조르쥬 무냉(George Mounin) 번역론의 몇 가지 철학적 전제들에 관한 소고*

윤 성 우
(한국외대)

1. 서론—무냉(1910-1993)의 번역학적 위상

나이다(Eugene A. Nida)는 번역이론을 역사적으로 개관하는 짧은 논문 “Theories of Translation”(1991)에서 『번역의 이론적 문제점』(*Les problèmes théorique de la traduction*)(1963)의 무냉을, 『바벨 이후』(*After Babel*)(1975)의 스타이너(George Steiner)와 더불어 넓은 의미의 “문헌학적”(philological) 관점에서 번역의 문제—즉, 언어간적 의사소통의 문제—를 다룬 사람으로 분류¹⁾하고 있다(Nida 21). 반면 그리스 번역학자 바실리스 쿠티시비티스(Vassilis Koutsivitis)는 「번역의 본질에 대하여」(“Pour une théorie de l’essence de la traduction”)에

* 이 논문은 2008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작성되었음.

1) 나이다는 문헌학적 관점과 더불어, 언어학적, 의사소통적, 사회기호학적 관점 등등으로 번역 문제에 접근하는 시각을 나누고 있다.

서 20세기 초반까지의 연구를 문헌학적인 연구로 규정하고, 무냉의 연구를 랑그 차원에서 번역 현상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언어학적”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다(Koutsivitis 468-472). 그 전체적인 성격 규정을 어떻게 하든 언어학자인 무냉이 시도한 번역 연구(translation studies) 내지 번역학(traductologie)에의 개입과 참여는 과소평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의 주요 저서들을 살펴보면 전부 번역의 문제를 직간접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부정하나 아름다운 여인들』(*Les belles infidèles*)(1955), 『번역의 이론적 문제점』(1963), 『언어학과 번역』(*Linguistique et traduction*)(1976)은 물론이고 심지어 『언어학과 철학』(*Linguistique et philosophie*)(1975)까지도 의사소통으로서의 번역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주저를 통한 무냉 자신의 개입이나 다른 이론가들의 분류에도 불구하고 국내는 물론이고 불어권내에서도 무냉에 대한 연구가 왕성하거나 왕성했다고는 볼 수 없는 형편이다. 철학자이자 번역학자인 라드미랄(Jean-René Ladmiral)이 무냉이 작고한지 얼마 뒤 「무냉을 출발점으로 삼아: 고고학적 시론」(“A partir de George Mounin: esquisse archéologique”)(1995)을 발표한 정도이다. 물론 2차 문헌 및 연구서의 상대적 빈곤이 주저자의 학문적 시도나 업적을 반영하는 것은 아닐 것이며, 반대로 그런 2차 문헌들의 풍부함이 반드시 그 저자의 학문적 완성도를 입증하는 것도 아닐 것이다.

무리한 일반화를 감내한다면 적어도 프랑스 번역이론들안에서 무냉의 자리를 다음과 같이 한번 제안해보고자 한다. 한쪽에는 앙트완 베르만(Antoine Berman), 앙리 메쇼닉(Henri Meschonnic) 같은 이들이, 다른 쪽에는 라드미랄 또는 ESIT를 중심으로 한 해석이론가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들 모두를 “번역학자”(traductologue)라고 부른다면, 무냉의 번역 담론은 언어학과 번역학의 중간 경계 지역에 어딘가에 위치한다고 우리는 본다. 직역-의역, 충실성-가독성 등 번역 담론을 양분해 왔던 전통적인 분류나 구분에서 보자면 무냉의 입장이나 경향은 넓게 보아 후자들의 그것과 유사하거나 그들의 학문적 선배의 위치에 있다고 본다.

무냉이 생산한 번역 담론의 모든 것을 재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또 가

능하지도 않다면 우리는 그가 제시하는 근본적인 번역학적 테제를 몇 가지로 재정식화해보고 그것이 지니는 암묵적 전제들을 비판적으로 음미해 보는 작업에 만족하고자 한다. 무냉의 테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1. 번역은 의술(médecine)과도 같이 하나의 과학(une science)에 근거한 하나의 예술(un art)이며 그 과학이란 다른 아닌 언어(과)학이다.
2. 번역의 불가능성을 포함하여 번역을 곤란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언어적 또는 언어간적 장애물들은 다양한 종류의 보편소(des universaux)의 발견을 통해 극복가능하며 따라서 번역은 가능하다.
3. 번역을 통해 전해져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의미 또는 효과(effet)이다.

테제들이 지니는 논지의 중요도는 위에 나열된 순서와 같겠지만 논지의 원활한 전개를 위해서는 역순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2. 본론

2.1. 의미(sens) 그리고 효과(effet)에 대하여

필자가 보기에 무냉은 직역-의역, 충실성-가독성, 원(原)저자-독자, 문자(lettre)-의미(sens)(Berman 1984,1999), 시니피앙-시니피에(Ladmiral 1986 33, 42)²⁾ 등 번역 담론의 역사를 지배해온 뿌리깊은 이항적 구도에서 크게 보아 후

2) 라드미랄은 여기서 소쉬르의 전문적 용어였던 ‘시니피에’와 의미를 거의 같은 것으로 비유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사실 의미의 문제는 언어학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철학의 오랜 문제였다고 볼 수 있다. 의미(意味)라는 용어는 그 이웃에 개념, 관념, 의도(뜻)/의사, 인간 주체, 사물/사태 등등 철학의 중요한 용어들과 함께 다루어지거나 이해되어 왔다. 적어도 20세기 소쉬르 같은 언어학의 맥락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은 의미가 순수하게 언어 내재적인 사건으로 규정된다는 것이었다. 시니피앙(기표, signifiant)-시니피에(기의, signifié) 구분, 그 관계의 자의성, 랑그(langue)-파롤(parole) 구분, 랑그 중심의 언어분석 등등은 언어의 의미가 그 사용자의 의사에 의존하는 것도 아니며 그가 지칭 또는 지시하고자하는 사물이나 사태에 의존하는 것도 아니라는 함의하는

자의 편에 서있는 학자이다. 물론 여기서 문제는 과연 무녕이 어떤 의역론자인지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현대에 들어서 모든 직역론자들에게는 의역론적 요소가 있거나, 적어도 이론적으로 직역론을 펴지만 번역 실무에서는 의역을 배제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단어 대 단어를 옮기는 것을 요즘의 직역론으로 이해하지 않는 것처럼 무녕의 의역론 역시 자연 언어와 텍스트의 모든 것을 제거한 채 전달 가능한 의미만을 뽑아 그것만을 중시하는 좁은 의미의 의역론자는 아니다. 심지어는 모국어를 낮설게 하는 직역이라도 “미학적 통일성”이나 “시적 동질성”(Mounin 1955 101)을 확보한 번역의 유형을 경우 기꺼이 인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말하자면 “확장된” 의미의 의역론자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하더라도 그의 저서들에 흐르는 기본적인 기조는 의미에 방점을 둔 번역임에는 변화가 없다. 그는 『부정하나 아름다운 여인들』에서 번역 불가능론을 반박하기 위해, 의미론, 형태론, 음성학, 문체론 등에 기반을 둔 번역 불가능론의 차례로 반박하면서 “채색유리”(verres colorés)-“투명유리”(verres transparents)(Mounin 1955 74, 91이하)³⁾라는 자신의 용어를 통해 전통적인 이항구도를 재정식한 바 있다. 무녕이 지지하는 이상적인 번역이란 “사람들이 유리가 없다고 믿을 정도로 투명한 유리가 되는 것”(Mounin 1955 75)⁴⁾이라고 말하는데 “번역하되, 외국어의 낯설을 전혀 배제한 채, 마치 불어로 사유한 다음 바로 불어로 쓰나가듯 한 인상을 가지도록, 말 그대로 불어화해서, 번역하기”(Mounin 1955 75)라고 규정한다. 무녕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보다 과격한 다음과 같은 주장에 주목해보자.

것이였다. 다시 말해, 언어를 구성하는 다양한 층위들의 요소(예를 들어, 음소, 형태소, 의미소 등등)들 간의 변별적 차이와 그 관계로부터, 또 그것에 의해 의미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의미는 고정된 실체나 본질이 아니라 한 음소나 형태소나 어휘 등의 체계 내에서 발생하는 차이의 산물이 되고 마는 것이다. 만약 여전히 소쉬르의 시니피에와 의미를 같은 것으로 간주한다면, 따라서 이때 의미는 한 주어진 자연언어의 내재적 요소들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자연언어로 번역이 되거나 전이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음소나 형태소 자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일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단어, 더 정확히 말하자면, 문장 내에서의 단어 또는 문장의 수준까지 가야만 번역 가능한 그 무엇을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

3) 이점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의와 정리는 정혜용(2005)을 참조.

4) 무녕은 이 주장을 러시아 문호 고골(Gogol)에서 빌려온다.

“번역이 자신의 유일한 이상(理想)인 이런 투명한 유리가 되기 위해, 번역가는 단어들, 표현법들, 말투들, 심지어는 감정들, 태도들, 풍습의 특징들 등 자신의 독자를 낮설게 할지도 모르는 모든 것들을 감추고, 이동시키고, 제거하게 되는 것이다.” (Mounin 1955 89)

무녕이 선택한 이런 보다 분명한 전략으로 그가 염두에 두는 것은 무엇일까? 번역가를 이렇게 투명하게 만들어서 번역가와 동시대의 독자로 하여금 무엇을 제공해주려는 것일까? 무녕은 18세기 불어로 번역된 호머 작품을 예로 들면서 “번역이 너무나 완벽하게 투명하게 된 나머지 18세기 독자들은 사소한 몇 가지를 제외한다면 『일리아드』 세계의 존재들과 사물들(사태들)이 당대 불어와 프랑스의 그것들과 실체적으로 동일하다는 인상을 간직하게 되었다.” (Mounin 1955 90)고 말한다.

앞서 전개된 무녕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한번 정리해보자.

1. 번역해야 될 텍스트가 지니는 문화적 및 시·공간적 거리나 차이는 모국어 독자들에게 대한 원활한 의미 전달이나 의사소통을 위해 동화(同化)의 대상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2. 번역을 통해 복원되어야 할 텍스트의 의미는 그 텍스트가 본래 입고 있었던 언어가 그 당대의 독자들에게 준 인상이나 효과와 아주 유사하거나 동일한 인상이나 효과를 얼마나 도착어 독자에게 주느냐에 달려 있다. 언어의 형식이나 구조가 중요한 시(詩)를 번역할 때도 출발어 시의 구조나 형식을 그 자체로 옮기는 것이 번역의 관건이 아니라, 본래 시와 “동일한 시적 기능”(fonction poétique) (또는 동일한 시니피에들)(Mounin 1976 95)을 옮기는 것이 관건이다. 도착어 시를 원전의 구조나 형식과 유사하거나 또는 다르게 옮길 때조차도 원전과 동일한 시적 “효과”(Mounin 1976 105)를 가지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번역은 아니다.

3. 따라서 무녕 번역론에서 성공적인 번역의 여부는 출발 언어의 텍스트와 그 당대 독자 사이에 있었던 효과를 번역이 얼마나 재현(再現, représentation) 하느냐에 달린 것이다. 무녕이 말하는 번역의 이데아는 원전-원독자 사이의 관계를 번역본(번역본)독자 사이의 관계가 최대한 모방하고 닮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번역의 기준과 모델 그리고 범례는 원전과 그 독자 중심으로 이미 구성되어 있고 심지어 결정되어져 있다.

번역의 이상(理想)을 이렇게 규정함에 따라 무녕 번역론은 몇 가지 암묵적인 전제를 가질 수밖에 없다.

1. 번역을 통한 모국어의 근본적인 변화 내지 변형은 있을 수 없다. 그야말로 모국어는 근본적으로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는”(intouchable) 존재가 되고 만다. 모국어는 닫힌 공간으로서의 언어 공간이 되는 것이다. 모국어는 번역의 출발점뿐만 아니라 귀향점이 됨으로써 모국어에 가해질 수 있는 그 어떤 변형도 일종의 질병으로 이해된다. 물론 언어 간의 접촉을 통해 어쩔 수 없이 얻어지는 단어나 외래어를 통한 모국어의 확장까지 무녕이 거부하지는 않았겠지만 여전히 그에게서 자민족/자국어 중심(ethnocentrique) 번역의 혐의가 배제될 수 없는 것이다.

2. (모국어의) 독자는 항상 낯선 언어 앞에서 당황하며 의사소통만을 갈망하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오히려 그 낯섬을 번역이 걸러 내어주기를 기다리는 존재로 상정된다. 독자의 자기 동일성은 모국어의 자기 동일성만큼이나 견고하거나 불변적이다. 번역은 독자로 하여금 이국성을 직접적으로 맞닿게 하지 못하게 걸러주는 일종의 예방주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국성이나 낯섬의 순치(順治)가 바로 번역인 것이다. 하지만 자아 중심적(egocentrique) 번역의 혐의가 엿보인다.

3. 출발어의 원전은 이데아이며 모델이다. 번역의 목표는 출발어의 효과를 도착어 안에서 최대한 반영하거나 재현하는 것으로 상정된다. 시대에 따른 많은 재번역의 경우도 지금의 독자에게 가장 알맞은 복사본을 제공해주는 노력으로 파악된다. 원전보다 훌륭한 번역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며, 원전에게 그 원전 자체가 간과한 가치를 복원시켜주거나 발견케 하는 가역(可逆)적인 영향력을 번역이 가진다는 것은 개념적으로 불가능하다. 늘 원전은 번역본보다 존재론적으로 우월하며 앞서있다. 재번역들 간의 있을 수 있는 차이는 다템이나 동화의 상이한 양상을 반영하는 것뿐이다. 하지만 이때 번역은 동일자에 대한 반

복에 불과하다는 일종의 본질주의 혐의나 플라톤주의의 혐의를 부인할 수 없다.

사실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거나 풀리지는 않은 것처럼 보인다. 다시 말해 텍스트의 의미나 효과라는 것이 번역 당시의 독자의 취향이나 번역 언어를 중심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출발어의 그것들을 존중해주는 방식으로 갈 것인지를 문제 말이다. 도착어 중심에 선다면 이국언어의 낯섬을 수용하지는 것이 자국어에 대한 “폭력의 논리”(Ladmiral 1986 39)가 될 것이 때문이고, 출발어의 낯섬을 순치하여 자국어에 동화하거나 병합하고자 하는 논리는 출발어와 그 타자성에 대한 폭력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성급한 결론이나 하나의 해결을 모색하기 전에 여전히 고민하고 성찰해야 할 다음과 같은 근본물음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적합해 보인다.

“번역은 원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독자들을 위한 것인가?” (벤야민 반성완 편역 319)

긍정으로 답하거나 부정으로 답을 해도 그 답의 근거들이 자리하는 지평이 동일선상에 있지 않다면 이 물음은 앞으로 좀 더 사유되어야 할 물음으로 남는다.

2.2. 번역 불가능성과 보편소(普遍素, des universaux)에 대하여

무냉이 자신의 주요 저서들인 『부정하나 아름다운 여인들』(1955), 『번역의 이론적 문제점』(1963), 『언어학과 번역』(1976)을 통해 집요하게 주장하는 테제가 있다면 다음의 두 가지 정도로 압축된다.

1. 번역은 언어적 현상이며 따라서 언어학의 연구 대상이다. 언어학은 “이국언어가 주는 현혹이나 번역의 어려움을 가지는 소위 심오한 신비 전부를 해소하지는 못하겠지만 그것들을 기술하고, 한정지으며, 정의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Mounin 1976 81).

2. 번역은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가능하다. 따라서 번역 불가능론은 반

박의 대상으로서 언어 간 접촉의 빈도나 역사의 문제이지 형이상학적 차원의 문제는 아니다. 번역의 보편소가 자연언어들의 상이성과 차이를 뛰어넘어 번역을 가능케 하는 토대이다.

사실 번역학의 기원을 무녕처럼 대조언어학에서 찾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언어현상으로서의 번역을 언어학이 연구대상으로 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필요도, 또 그럴 수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라드미랄 같은 학자는 무녕을 “번역학”(traductologie)이라고 부르는 분야의 “시조들”(始祖, *pères fondateurs*)들 중의 한 사람으로 보는데 기꺼이 동의하고 있다(Ladmiral 1986 38). 다만 무녕이 보여주는 언어학에의 충성도는 매우 강해서 번역에 대한 언어학적 성격의 연구를 지나쳐서 “언어학주의적인”(linguisticiste) 성격까지 띠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Ladmiral 1986 48). 예를 들어 『언어학과 번역』의 한 논문 「통계적 개념으로서의 번역불가능성」(“L'intraduisibilité comme notion statistique”)(Mounin 1976 51-56⁵⁾)에서 무녕은 2천년 동안 번역가의 개인적이고 불완전한 체험이나 주관적인 직관에 근거하여 제기되어온 번역 불가능성의 문제를 언어과학의 기술적 관점에서 새롭게 접근해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 텍스트 전반에 걸친 곤혹한 문제로서의 번역 불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한정된 자료”에서 찾을 수 번역 불가능의 사례로 치환해서 파악하고, “객관적이고 심지어는 통계적이며, 전적으로 양적으로” 접근해보자고 제안한다(Mounin 1976 51). 무녕을 따라 ‘통계적 개념으로서의 번역 불가능성’의 예를 살펴보자.

“『슬픈 열대』(450쪽, 190000 단어) 저자 레비스트로스 경우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 준다. 이 저서에는 라틴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영어, 남비크와리어(nambikwara) 등의 외국어가 약 300여개 이상 등장한다. 그중 3분의 2는 번역되어 있고, 나머지 중 절반 정도는 맥락을 통해서나 정의(定義)를 해줌으로써 이해에 어려움이 없다. 다른 나머지는 프랑스 독자가 알고 있다고 추정되는 것으로서 차용어들이다(*drug-store, favellas, corn-belt, fazenda, placer* 등등). 또 몇몇은 지역(地域)색에 대한 취향을 존중해 번역이 되지 않은 채로 인용이 되면서 애매하게 쓰이고 있지만 맥락을 통해

5) 본래 이 논문의 출전은 *Babel*. n°3. 1964. 122-24 라고 무녕이 밝히고 있음.

충분히 파악된다(식물이름, 동물이름 및 물고기이름 등등).” (Mounin 1976 55)

이런 종류의 분석을 앞뒤에 몇 가지를 덧붙인 뒤 무냉은 “번역 불가능성은 신비한 것도 도깨비 같은 것이어도 안 된다. 그것은 하나의 통계적 개념”이라고 결론 내린다(Mounin 1976 56). 여기서 그가 의존하는 언어학은 그 자신이 언어학에 대해 가지는 신념과 충성도에 맞게 잘 작동하면서 훌륭한 쓰임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여기서 “언어학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문제들을 탈신비화하며, 번역의 지속적인 전진 운동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Mounin 1976 85). 그의 언어학은 단지 기술만하는 것이 아니라 심한 비난도 피하지 않는다. 시인 폴 발레리가 다음과 같이 말할 때 언어학자 무냉은 발레리가 우리를 난처함에 빠트린다고 비판한다(Mounin 1976 148).

“시(詩)가 문제가 되는 경우 단지 의미에 제한된 충실성(fidelité)은 일종의 배반이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구(詩句)라 하더라도 만약 그것이 그 시에만 내재하는 음악적 필연성과 울림이 배제된 채로 다른 표현으로 대체된다면 아무 뜻도 없이 무의미해지고 만다.” (Mounin 1976 147)

물론 무냉이 문체나 운율의 중요성을 매번 간과하는 것은 아니다. 『번역의 이론적 문제점』의 결론 부분에서도 나이다를 인용하면서 번역이란 “출발어의 메시지에 가장 가까운 등가를 도착어 속에서 생산하되, 우선 의미의 관점에서, 그 다음으로 문체의 관점에 생산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이승권 옮김 258 [Mounin 1963 278]; 필자 번역 수정). 여전히 방점은 의미에 주어져 있지만 말이다. 사실 무냉의 이런 입장은 반박하기 쉽지 않다. 시의 본질이 운율과 형식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다 하더라도 의미전달이나 의사소통에 성공적이지 못한 번역시의 작품성은 온전치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출발어 시의 리듬과 음악성의 존중이야말로 번역의 절대적 요소라고 상정한다면 “그리스어로 호머의 원전을 읽지 않은 사람은 시인인 호머를 전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우(遇)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Mounin 1976 86). 여기서 무냉은 베르만 같은 저자들이 종종 받는 비판인 “엘리트주의”의 혐의를 일찌감치 알아차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분명 무녕은 번역 불가능성 문제가 지녔다고 믿어온 형이상학적 압박감에서 해방을 시도하고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무녕의 분석의 설득력이 아니라 번역 불가능성의 또 다른 차원은 없는지 이다.

1. 앙트완 베르만의 경우 번역 불가능성은 두 차원으로 나뉜다. 그에 따르면, 만약 시가 번역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경우 한편으로는 “의미와 소리 사이의 무한한 관계 때문에 번역 될 수 없다”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불가침(不可侵)성으로서의 번역 불가능성이 시의 진리이자 가치이기 때문에 번역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Berman 1999 42). 베르만 더 나아가 “번역 불가능성이야말로 한 텍스트의 자기 긍정 방식들 중의 하나”라고까지 말한다(Berman 1999 42). 아마도 무녕은 전자 차원의 번역 불가능성을 논박하는 것으로 보인다. 독특하고 유일한 문자(lettre)에 둘러붙어 있는 시의 시적 의미를 분리해나가는 시를 침해한다는 것이 베르만의 생각이므로 “진정한”시는 그 자체로서 번역될 수 없다는 것이다. 번역가이기도 한 베르만이 수행(遂行)적인 자기 모순을 범하는 것일까? 의미 중심의 의사소통(communication) 번역론이 번역 독자나 수용자에게만 맞추어진 “불균형”한 의사소통이자 일방적인 의사소통이라고 보는 베르만에게서 후자 차원의 번역 불가능성의 확보야말로 번역의 “균형”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인지도 모른다(Berman 1999 71).

2. 무녕은 번역 불가능성 일반을 논박 가능한 것으로 입론(立論)하고 있는데 이런 논리를 일반화해서 끝까지 밀고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자연 언어들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한 언어 내에서도 의사소통이나 메시지 전달을 근본적으로 불가능케 하는 메커니즘은 가능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지 않을까? 무녕은 번역 불가능성을 이론적으로 반박함으로써 모종의 이상적 의사소통 또는 이상적 메시지 전달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언어 간 의사불(不)통이나 번역 불가능성이 없다면, 즉 번역의 작업의 권한이나 권능을 벗어나는 언어의 영역이 없다면, 언어내적으로도 그런 영역이 없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과연 우리가 자국어나 모국어 내에서 매번 이상적 의사소통의 상황에 살고 있는지 자못 궁금하다. 철학자 리콰르는 자신의 『번역론 - 번역에 관한 철학적 성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사실 파울 켈란(Paul Clean)같은 시인의 심오한 시는 서로 다른 언어 간의 차원 차원뿐만 아니라 언어 내적으로 볼 때도 형언 할 수 없는 것과 언명할 수 없는 것에 근접해 있으면, 결국은 번역 불가능한 것에 근접해 있다. [중략] 우리가 한 언어 내에서 형언 불가능함의 영역을 접해보지 않았다면, 우리가 비밀스러움이 무엇인지, 비밀스러운 번역 불가능성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겠는가? 이러한 영역을 접해 보지 못했다면, 사랑이나 우전과 같은 최고의 교감의 순간에 우리가 비밀스러움과 신중함이라는 자질을 통하여 친밀함속에서도 거리를 유지할 수 있었겠는가?” (리피르 128-30)

이미 모국어 내에서 언어의 경계나 한계를 겪는 체험이야말로 이해가능성이나 표현가능성의 끝, 다시 말해 언어 내재적 번역 불가능성을 맞보는 것이 아닐까? 우리말과 글이 모국어라 외국어보다 더 쉽고 이해하기 편하며, 전적으로 표현 및 번역 가능하다는 것은 하나의 이상이거나 순진한 전제에 불과하다. 번역 실무자들이 종종 내놓은 고백은 바로 도착어 즉, 우리말과 글이 더 어렵다는 것이다.

사실 언어학자 무냉은 번역 불가능론 반박을 『부정하나 아름다운 여인들』뿐만 아니라 『번역의 이론적 문제점』에서도 즐기치게 수행하고 있다. 많은 번역의 성공적인 사례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또 지금도 번역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번역 불가능론을 논파해야만 번역 작업에 뛰어들 수 있는 것처럼 그것에 집착을 보여주고 있다. 라드미랄은 이를 두고 무냉이 “선결적(先決的) 반박의 문제들”(problématique de l'objection préjudicielle)에 빠졌다고 날카롭게 비판한 바 있다(Ladmiral 1986 41). 무냉은 『번역의 이론적 문제점』의 서두부터 번역을 “언어 간의 접촉”(contact de langues)(이승권 옮김 4)으로 규정하는데, 결국 “언어 간 접촉은 모방을 낳고 모방은 언어적 수렴”(convergence linguistique)(이승권 옮김 205)을 생산하기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제 수렴은 언어적인 것을 넘어 문화적인데 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무냉은 계속해서 번역 불가능성 논박을 언어학의 지평을 넘어서서 인류학이나 민족지학의 자료를 활용하기 시작한다. 개별 문명과 개별 세계관이 달라도 번역이 가능한 것은 “언어의 보편소” 때문이고, “언어 내에서 의미 작용의 기초를 이루는 문화적이며 인류학적 보편소 개념” 덕분이라는 것이다(이승권 옮김 182). 무냉은 5가지 정도의 보편소들을 제시하고 있다.⁶⁾ 우주적 보편소(밤과 낮, 비와

바람, 땅과 하늘 등등), 생물학적 보편소(온도, 성(性), 호흡 및 배설, 등등), 심리적 보편소, 언어적 보편소(명사, 동사, 인칭 대명사 등등), 문화적 보편소(셈법, 근친상간, 타부 등등)가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보편소에 대한 무녕의 이러한 다소 과감한 주장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제기를 받을 만하다고 본다.

1. 무녕이 기술하는 보편소 개념을 따라 가다보면 여러 학자들의 저서와 언급을 통해 빌어 사용하면서도 상당히 추상적이고 애매한 수준에서 머문 채로 남겨 준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물론 철학의 “존재” 개념과 같이 보편적일 수록 그 구체성은 결여될 수도 있겠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번역 불가능성 문제를 통계적으로 논박하고 번역 가능성을 이론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주장하고자 하는 언어학자 무녕의 의도에 비추어 보자면 이 보편소 개념은 상당히 개론적이고 설익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보편소가 진정한 보편소가 되려면, 그 보편성의 수준이 지구상 자연언어들과 문화들 전체를 아우르는 수준이 되어야 하는데 무녕의 보편소는 아직 그런 인식론적 틀이나 지위를 가지지 못한 것 같다. 단지 구상(構想) 정도의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무엇인가를 설명해주어야 할 개념이 오히려 여전히 설명대상이 되고 있다.

2. 아마도 무녕의 보편소 개념은 음소, 형태소, 의미소 등의 소쉬르 이후의 음운론이나 형태론의 개념들에서 착안한 듯하다. 하지만 그 음소나 형태소들은 개별언어들의 랑그(langue) 차원에 국한되고 따라서 개별 언어들에 뛰어 넘어서는 보편성은 없다. 따라서 같은 접미어 “-소(素)”를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보편소와 다른 소들은 그 인식론적 위상이 다른 것이다. 차리리 무녕은 언어적 보편소 개념을 보완하거나 확장하여 자연 언어들 사이의 제 3의 지점에서 가상적으로나 잠재적으로 이 자연 언어들 언어적 기호 및 코드 변환을 가능케 하는 보편소까지 나아간다면 오히려 더 이론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3. 번역 또는 번역담론의 학적(學的) 성격에 관하여

무녕에 따르면, 번역은 언어(과)학에 기반을 둔 하나의 예술(또는 기예/기술,

6) 『번역의 이론적 문제점』 4부 전체(179-207)를 참조.

un art)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번역 작업이나 활동에서 언어학에 대한 참조나 언급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무냉이 참조하고 언급하는 비교적 좁은 외연을 가진 언어학을 지칭한다 하더라도, 언어학을 통해 무냉은 번역을 학문적 논의 및 연구 대상으로 분명하게 삼고 있다. 이때 무냉의 번역“론”에서 “론”은 언어학적 지식이나 그 체계를 가리킨다. 물론 인류학이나 민족지학에 대한 참조가 나오지만 그것은 다분히 의도적이고 제한적인 것이었다. 이런 언어학으로 우회, 또는 언어학주의에 우회하는 것이 번역에 대한 논의, 즉 번역담론의 학문적 성격이나 지위를 보장하는 유일한 길인지 자문해봐야만 한다. 필자가 보기에 유일한 길은 아니며 가능한 길들 중의 하나이다. 왜냐하면 번역 현상이나 번역 활동 자체가 하나의 특권적인 학문적 관점이나 입장에서만 고려될 수 있는 동질적인 현상은 아닌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번역이 동질적 대상이 아니라 이질적이고 복수적인 대상이라면 접근의 각도와 그에 이르는 길들도 이질적이고 복수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번역에 대한 유일한 관점은 가능하지도 않고 유익하지도 않으며, 또한 다른 모든 관점을 포섭하는 포괄적 이론이나 관점도 사정은 마찬가지 일 것이다. 언젠가 언어에 대한 유일하고도 포괄적 이론이나 가능하게 되는 날이 온다면 그때부터 번역에 대해서도 같이 물을 수 있을 것이다.

언어학말고도 정보이론, 인공지능, 컴퓨터 공학 등에서도 번역에 대한 과학적 접근을 가능하며 실제로 이루어진다. 적어도 무냉은 언어학의 편에 서서 번역 담론의 과학성을 확보하거나 심지어는“이론”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려고 노력한다. 그렇다 고해서 번역 현상에 대한 문학비평, 정신분석학, (인식론/윤리학을 포함하는) 철학, (페미니즘을 포함하는) 사회학 및 정치학, 계보학 및 문화학 등의 접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실제로도 이루어지고 있다. 인문학 중심의 번역학자인 스타이너(G. Steiner)는 『바벨 이후』에서 “이론”(théorie) 개념에 대한 경계심을 보이면서 번역 담론, 시학이나 해석학, 미학에서 “이론”이라는 개념의 쓰임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오히려 “그런 절차들에 대한 기술(記述)” 또는 “문제가 되고 있는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 그런 영역에 대한 자기 발견적이거나 모범적으로 적시(摘示)하는 작업”이 더 어울린다고 말한다(Steiner 21). 따라서 번역“론”에서 “론”은 자연과학에서의 “이론”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베르만 역시 “번역이 자

신의 (번역)체험을 바탕으로 자기반성을 하게 될 때 번역학(traductologie)이 성립된다”고 말한다(Berman 1989 675). 복수(複數)의 얼굴을 한 번역에게 하나의 가면만을 뒤집어씌우고 강요하는 환원주의적 태도만 피할 수 있다면 번역은 다양한 계기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를 드러낼 것이다. 확고부동한 지식에의 욕망만큼이나 대상 파괴적인 것은 없다.

3. 결론— 왜 무녕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가?

본질적으로 번역철학 또는 철학적 번역론에 관심이 있는 필자가 왜 언어학 주의를 고수하는 무녕에 관심을 가지는가에 대해 자문해 봐야할 것 같다. 물론 아직 번역철학 또는 철학적 번역론이라는 용어 자체가 제대로 정의되거나 규정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아마도 그 정의나 규정은 “철학”에 대한 개념 규정 자체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필자는 철학을 다양한 학문적 및 이론적 작업들에 대한 meta적인 비판 및 반성작업이라고 규정한다. meta라는 희랍어 접두사는 metaphysique(形而上學)에서 보이듯 “physique”(形而下學, 또는 자연학)을 “뒤에서”, “넘어서” 연구하는 작업이다. 다시 말해 자연학의 경계나 한계를 그어주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비가시적인) 원리를 탐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번역철학이란 번역학의 연구 성과의 의미를 비판적으로 음미하고 그 숨은 전제들을 밝혀내며, 번역의 작업이 근본적으로는 언어와 사유, 언어와 의미, 언어와 사회, 언어와 세계 사이의 관계에 대한 반성적 활동이라는 점을 밝히는 것이다.

왜 무녕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가? 무녕은 번역에 대한 언어(과)학적 접근을 자처한 사람이다. 반면 필자는 기본적으로 번역철학을 위한 인식론적 절차나 과정으로서 무녕의 번역론을 포함하여, 번역에 대한 언어(과)학적 연구에 관심을 갖는다. 번역철학은 번역에 대한 다양한 지식이나 앎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그 종류나 의미와 한계에 대한 논의—즉, 인식론—를 포함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번역에 대한 언어학적 접근만이 유일한 인식론적 통로는 아니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정신분석학, 문학비평, 심지어 페미니즘까지도 그런 통로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1975년 무녕은 『언어학과 철학』이라는 저서를 출간함으로써 『언어학

과 번역』(1976)과 더불어 언어 및 번역에 대한 지평의 확장에 대한 기대를 불러 일으켰다. 하지만 『번역의 이론적 문제점』(1963)에서 보여준 인류학영역에 대한 관심과 같은 것이 『언어학과 철학』에서도 생산적으로 반복될 것을 기대한 독자가 있다면 매우 실망하게 될 것이다. 잘 들여다보면 여전히 언어학을 고수하는 그의 태도는 계속된다. “언어학과 철학”이라는 제목이 무색하게 그의 접근은 “철학”과 무관해 보인다. 프랑스의 내로라하는 철학자들(리쾨르, 알튀세르, 데리다, 들뢰즈 등등)을 짧게 인용하지만 그의 논점과 비판은 정직하기보다는 신랄한 편이다. 무냉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철학의 수행에 내재하는 하나의 직업병 있는데, 실상 철학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이미 형성해 놓은 현실들 바탕으로 작업하기 때문에 추상에 추상을 거듭한다. [중략] 자기 자신이 좋은 실험자가 되지 못한다면 실험 과학들에 대해 철학을 수행하는 것은 아마도 불가능할 것이다. 여하 간에 언어학과 관련지어서 나의 경험을 말해 본다면, 언어학이 책을 통해서만 제공하는 추상물들만 가지고 언어에 대해 합당하게 말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다. 충분한 수(數)의 구체적인 경우들에 대한 언어학적 분석을 수행해 봄으로써만, 엄밀히 말해 이런 유형의 분석에 대한 섬세한 지식을 통해서만이 언어에 대해 철학적으로 반성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가능하게 된다.”

(Mounin 1975 8-9)

언어학의 문제에 철학자들이 좀 더 친숙해져하고 좀 더 노출되어야 한다는 의도가 담긴 말로 받아들이자. 다만 철학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담아 던진 무냉의 이 언급에는 오히려 철학의 본질적 지향이 담겨져 있다. 즉, 구체를 통해 추상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훌륭한 실험적 배경과 능력을 갖춘 언어학자나 물리학자만이 훌륭한 철학자가 될 수 있는 것일까? 그런 것들을 구비한다면 언어학자와 물리학자가 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을 충족하는 일이겠지만 철학자에게는 중요한 필요조건들 중의 하나이다. 구체와 개별적인 것 자체를 강조하는 철학이라도 그것에 머무는 철학은 없다. 철학은 구체와 함께 시작되지만 그것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언어학자가 구체적인 것으로 초대한다면 철학자는 구체에서 추상으로 초대한다. 따라서 무냉 같은 언어학자들도 철학의 초대에 응해야 할 것 같다.

참고문헌

- 정혜용. 2005. 「직역론의 새로운 갈래와 번역 패러다임의 변화」, 『프랑스학연구』 33. 269-86.
- 이승권 옮김. 2002. 『번역의 이론적 문제점』. 고려대학교 출판부(Mounin, G. 1963. *Les problèmes théorique de la traduction*. Paris: Gallimard).
- 발터 벤야민, 반성완 편역. 1983. 『발터 벤야민의 문예이론』. 민음사.
- 윤성우 · 이향 옮김. 2006. 『번역론-번역에 관한 철학적 성찰』. 철학과현실사 (Ricoeur, P. 2004, *Sur la traduction*, Paris: Bayard).
- Berman, A. 1984. *L'Epreuve de l'étranger*. Paris: Gallimard.
- _____. 1989. "La traduction et ses discours." *Meta* XXXIV:4. 672-79.
- _____. 1999. *La traduction et la lettre ou l'auberge du loiltain*. Paris: Seuil.
- Koutsivitis, V. 1993. "Pour une théorie de la essence de la traduction." *Meta*. vol.38. n°3. 468-72.
- Ladmiral, J-R. 1986. "Sourciers et ciblistes." *Revue d'esthétique* n°12. 33-42.
- _____. 1995. "A partir de George Mounin: esquisse archéologique." *TTR* vol.8. n°1. 35-64.
- Steiner, G. 1988. *Après Babel - une poétique du dire et de la traduction*(1975, 1992, 1998. *After Babel - aspects of language & transl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Mounin, G. 1955, 1994. *Les belles infidèles*. Presse Universitaires de Lille.
- _____. 1975. *Linguistique et philosophie*. Presse Universitaires de France.
- _____. 1976. *Linguistique et traduction*. Dessart et Mardaga.
- Nida, E. A. 1991. "Theories of Translation." *TTR* vol.4. n°1. 19-32.

[Abstract]

Some Philosophical Implications of George Mounin's Theory of Translation

Yun, Seong Woo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aim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some of the philosophical implications of George Mounin's Theory of Translation. To do this we will summarize some of the basic thesis of his important books, *Les belles infidèles*(1955), *Les problèmes théorique de la traduction*(1963), *Linguistique et philosophie*(1975), *Linguistique et traduction*(1976). We will then try to determine their philosophical premises. First, we will examine the meaning or effect oriented translation of theory, called “ethnocentric”, “egocentric”, and “platonic”. Second, regarding the universal elements that make the existing natural languages communicable, we think that this conception of language seems to remain very abstract and difficult to be proved. We will investigate whether the universal elements will be a transcendental presupposition or a speculative artifact. Thirdly, it seems to us that Mounin's position of translation is closer to “ligusticisme”, which implies his persistence in some strong linguistic assumptions, rather than a general linguistic point of view as an empirical or inductive science. Lastly, this study leads us to the heterogeneous and diverse characteristics of translation, because it is the case that there is a wide diversity of approaches on the question of translation. A style of linguistics that Mounin bears in mind is not unique to a linguistic explication level of translation. However, we do not deny a epistemological function of Mounin's linguistics or his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translation studies.

▶ Key Words: Mounin, meaning, effect, universal elements, translation studies,

윤성우

한국외국어대학교 철학과 교수

swyun2002@hanafos.com

관심분야: 번역철학, 언어철학, 해석학

논문투고일: 2009년 1월 21일

심사완료일: 2009년 2월 21일

게재확정일: 2009년 3월 7일